

“임시정부와 비밀작전 8개월 모진 옥살이 유치장서 맞은 ‘대한 독립’ 지금도 뭉클”

광복 70주년
끝나지 않은 이야기

<3> 최후의 독립운동가
장성 노동훈 옹

10일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 삼익아파트 〇〇〇동 〇〇〇호. 이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자, 거실장엔 국민훈장 동백장이 놓여 있었다. 이 동백장은 정부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한 훈장으로, 이 훈장의 주인은 독립유공자 노동훈(89)옹이다.

그는 호적상 1927년생이다. 하지만 실제 태어난 연도는 호적보다 2년 빠른 1925년생이다. 그는 광주·전남지역 독립유공자(360명) 생존자 5명 중 최연소자다.

장성에서 태어난 그는 지난 1944년 12월 연합군이 한국에 상륙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락원으로 비밀작전을 계획하던 중 발각돼 투옥됐다. 앞서 그는 1943년 3월 광주사범학교(현 광주교대) 3학년 재학 중 옥대호 등 17명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한 뒤 매주 한 차례씩 모임을 갖는 등 민족독립운동과 식민사관에 대항한 정통역사관 확립에 노력했었다.

광주사범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무등독서회는 시국현안과 독립항일투사 활동기 등 독립운동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었다.

무등독서회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와 비밀리에 소식을 주고 받던 그는 나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그는 고문 경찰관으로부터 매일 두 시간씩 종아리·허벅지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다. 무등독서회원들의 이름을 알고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는 결국 재판 한 번 받지 못한 채 무등독서회를 조직, 학생들을 선동해 시국을 어지럽혔다는 혐의(치안유지법 위반)로 8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이듬해 광복이 되자 풀려났다.

모진 고문 얘기에 괴로워하던 그에게



10일 오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택에서 독립유공자 노동훈(89) 옹이 일제강점기 당시 광주사범학교 학우들과 ‘무등독서회’를 결성해 독립운동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광주사범학교 재학중 무등독서회 조직해 매주 모임

광복후 대성초교서 교편...여순사건으로 남동생 잃어

“소원은 통일...진정한 의미의 광복 끝나지 않은 숙제”

서 광복 얘기가 나오자 어느새 그의 목소리엔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 듯 가슴 벅찬 감동이 배어 나왔다.

“8월 15일이었는데요. 한 조선인이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들어오니 손짓으로 허공에 ‘일본 항복’이라고 쓰더라고요. 내 몸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지만 내 눈동자는 이미 (그 조선인의) 손짓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요.”

광복 직후 광주사범학교에 복학한 그는 이듬해 졸업한 뒤 광주 대성초교 교사로 발령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17살이던 남동생이 여순사건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하나 뿐인 동생이 이념논리에 의해 목숨을 잃은 터라 그의 상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독립운동·광복·여순사건 등 역사의 모진 풍파를 겪어온 그의 신념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992년 나주 공산초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기까지 지난 45년간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념을 가르쳤다.

청소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타의에 의해 이끌려 가는 삶을 산다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광복의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 그는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부족한 역사인식 등을 예들려 이 같이 표현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발전을 위한 것이지요. 자기 발전은 곧 나라발전으로 이어지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시대적 비극이 또다시 찾아오겠습니까.”

생전에 꼭 풀어져야 할 과제가 있다는 그의 첫 번째 소원은 남북통일이다.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원수지간이 된 분단된 조국,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얻어냈지만 민족끼리 아직도 이념논리에 의해 온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념논리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하나 뿐인 동생의 죽음과도 관련 있다.

“민족애를 바탕으로 한 조국의 평화 통일 없인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아니죠. 광복은 조국통일로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해 광복절을 맞이한 지 70년이 다 돼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광복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과제라고 봅니다. 생전에 조국통일이 이뤄져 한민족이 독립만세를 한 번 외쳐봤으면 원이 없겠네요.”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9 해질 02:36
해진 19:26 달진 16:51



무더위 대려갈 대비						
남서쪽에서 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주 차차호려제비 24/30	보 성 차차호려제비 22/28				
목포	차차호려제비 23/28	순 천 차차호려제비 24/30				
여수	차차호려제비 25/28	영 광 차차호려제비 23/29				
나주	차차호려제비 23/29	진 도 차차호려제비 23/27				
완도	차차호려제비 23/28	진 주 차차호려제비 23/29				
구례	차차호려제비 24/30	군 산 차차호려제비 22/28				
강진	차차호려제비 23/28	남 원 차차호려제비 22/29				
해남	차차호려제비 23/28	흑산도 차차호려제비 23/27				
장성	차차호려제비 22/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1.0~2.0	
남부	남바다	북동~동	1.5~2.5	동~남동	2.0~4.0	
	안바다	북서~북	0.5~1.5	북동~동	1.0~2.0	
남해	남바다(동)	북서~북	1.0~2.0	북동~동	1.5~2.5	
서부	남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2.0~3.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35	05:08				
	23:31	17:09				
여수	06:59	00:59				
	19:33	12:53				
◇주간 날씨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24/28	24/30	23/30	23/30	24/31	24/31	24/30

대형 교통사고시 인근 운전자에 알림 문자

국민안전처 ‘문자 발송시스템’

대형 교통사고에 따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지 인근 운전자에게 휴대전화와 문자로 사고 상황이 안내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대형 교통사고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대형 교통사고 알림 문자 서비스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지역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고 우회로를 안내해주는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다.

알림 문자는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재난 문자 발송시스템’(CBS)을 통해 전파된다.

CBS는 재난발생 지역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휴대전화와 문자로 재난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일괄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최근 CBS로 폭염특보 관련 문자가 발송된 바 있다.

경찰청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각 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을 얻게 됐다.

경찰은 고속도로나 대교 등 한번 진입하게 되면 빠져나갈 수 없는 폐쇄성 도로에서의 대형 교통사고에 한해 알림 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교도소 면회,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모범수형자 대상 31일부터

스마트폰 시대에 교도소 면회 풍속도 달라진다.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교도소·소년원에 있는 가족과 스마트폰 영상으로 만나는 ‘스마트 점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 점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용자 가족의 스마트폰과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교정기관 내 영상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인터넷 화상점점’은 가정에서 PC를 이용해 점점할 수 있으나 스마트 점점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수용자와 만날 수 있다.

법무부는 스마트 점점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점점은 전국 15개 교도소, 11개 소년원에서 모범수형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365일 따뜻한 금융으로 광주문화신탁이 조합원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금리에 금리를 더한 문화신탁 파워 예금·적금

예탁금 금리

2년 2.3% + α
1년 2.2% + α

목돈마련 정기적금(안정적인 이자수요)

2년 2.5% + α
1년 2.4% + α

0.1%가 아쉬운 시대, CMA보다 높은 문화신탁 자유입출금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1.50% + α

- 신규 개설시 혜택
 - ☑ 폰·인터넷 뱅킹 수수료 면제
 - ☑ 스마트폰 뱅킹 수수료 면제
 - ☑ 이용 실적에 따른 예금·대출 금리 우대
 - ☑ 입출금 SMS 수수료 면제
 - ☑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자동이체 하면 이자가 불어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불어나 예탁금 행복이벤트



- 1. 수수료 면제
납부자등이체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전자금융수수료(단, 월 기준 자동이체 2건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 2. 우대이율적용
- 기본우대이율: 자동이체 2건 이상 또는 자동이체 금액 30만원 이상 실적(불능 제외)이 있는 경우
- 추가우대이율
 - ① 최소 기본우대이율 요건(자동이체 2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인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② 신탁공제 월불입금액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③ 신탁체크카드, 신탁제휴신용카드 결제계좌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①과②는 중복하여 추가우대이율을 적용

